

제 34화 : 에필로그

이 소설에 담긴 모든 문장과 기억은,

내 서글픈 청춘의 페이지 속에서 '재인'이라는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간직해
야했던 나의 첫사랑,

본명 '신용주'.

그 꾸밈없고 발랄했던 소녀와 내가 인생의 가장 눈부신 시절을 함께 통과하
며 그려낸 사실에 기반한 아름답고도 가슴 저린 첫사랑의 기록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자락에 펼쳐졌던 '포레스트 론 메모
리얼 파크'에서의 묘소 참배 장면은 아직 현실로 이뤄내지 못한, 내 인생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다.

나는 아직도 용주가 이 거대한 세상 어느 모퉁이에 영원히 잠들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쥐고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녀가 머나먼 미국 땅 어딘가에 홀로 누워
있다는 가혹한 사실뿐이다.

시간을 거슬러 2013년 가을,

서울 강남 반포동 센트럴시티의 한 카페에서 용주의 여동생을 만나 한 시간
남짓 대화를 나누었을 때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여동생의 메마른 입술을 통해 용주의 사망 소식을 처음으
로 전해 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잔인한 충격이었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아니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비극 앞에서 나는 이성을 잃었다.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실제로 내 심연은 그 잔인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 지독한 충격 탓이었을까.

여동생을 만나 들었던 무수한 이야기 중 내 뇌리에 문신처럼 박힌 기억은 고작 두 가지밖에 없다.

- 용주가 미국으로 건너가 불의의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비극.
- 그녀의 외로운 장례식에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 누구도 가지 못했다는 서글픈 사실.

그 외의 다른 기억들은 마치 연기처럼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사람은 너무도 믿고 싶지 않은 가혹한 진실을 마주하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조차 지워버린다는 것을 나는 나의 서글픈 경험을 통해 절감했다.

미국 어느 도시였는지, 어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는지 동생은 분명 내게 말해 주었을 테지만, 슬픔으로 마비된 나의 기억 창고에는 끝내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았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내 깊은 심연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그 사실을 단

호히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었다.

떠 올리는 순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정신적 충격 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에.

그래서 난 그 비극을 철저히 외면하였고 더 이상 그녀의 여동생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연락처를 내 전화기에서 삭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끈질기게, 내 남은 생의 온 힘을 다해 그녀가 누워 있는 그 초록의 정원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기필코 내 목숨의 불꽃이 다하기 전에, 청동 묘비 위에 내 늙은 손을 얹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으로 이번 생에서 과분하리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 같은 화려한 껍데기들은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만의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첫사랑을 그녀가 내 삶에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하여 '신용주'라는 단발머리 소녀가 이 세상에서 한 시절을 밝고

때론 아파하며,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다 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보잘것 없으나 온 영혼을 바쳐 쓴 이 글을 나의 영원한 첫사랑 '신용주'에게 바칩니다.

용주야! 이번 생에서 나를 더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먼 훗날, 다음 생의 어느 길목에서 우리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번 생에서처럼 서투르고 아프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너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내 척박한 삶에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와주어서 정말로 고마웠어. 우리,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